

단편영화 < 오래달리기 > 시나리오

각본 안정훈

원안 최준

S#1 운동장 / 낮

유난히 뜨거운 태양. 비틀거리며 뛰고 있는 민경,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다. 그때 아이들이 민경을 추월하고, 민경은 다리에 힘이 풀려 넘어진다. 넘어진 민경을 향해 아이들은 수군거리며 민경을 비웃는다.

학생1 재 뭘데 넘어지냐?

학생2 아 그니까

Cut to. 운동장 / 저녁

학생들이 다 하교하고 운동장에는 아무도 없다. 민경은 혼자 학교 운동장에 남아 달리기를 연습한다. 민경은 손에 스톱워치를 든 채 운동장을 달린다. 민경은 한참을 달리다가 지친 듯 달리기를 멈추고 스톱워치를 본다. 하지만 여전히 늘지 않는 기록에 민경은 털썩 주저앉는다.

S#2 민경의 집 (방) / 낮

민경은 방에서 택배 상자를 뜯어본다. 상자 안에는 며칠 전에 민경이 온라인 쇼핑 사이트에서 봤던 신발이 들어있었다. 민경은 기다렸다는 듯 얼른 꺼내어 신발을 신어본다.

S#3 한강 / 밤

민경은 한강에서 새 신발을 신고 달리기를 하고 있다. 하지만 새 신발을 신은 탓인지, 민경은 그만 발을 접질리고 만다. 민경은 발목을 붙잡으며 주변 벤치에 앉는다. 민경은 그 자리에서 신발을 벗어 던져버린다.

S#4 교무실 / 낮

다음 날, 발목에 붕대를 감은 채 민경은 교무실에 있는 담임선생님에게 찾아간다.

민경 선생님...

선생님 어 민경아 무슨 일이야? 발은 왜 그래? 왜 다쳤어?

민경 선생님 저 이제 오래달리기 안 할래요...

선생님 그게 무슨 소리야? 오래달리기를 안 한다니...?

S#5 운동장 / 낮

넘어진 민경, 선생님은 놀라 잠시 주춤하고 이내 벌떡 일어나는 민경을 지켜본다. 민경은 운동장을 달린다.

선생님(NA) 민경아, 부담가질 필요 없어
민경(NA) 그러니까 이제 저 그만 뛰어도 되죠…?
선생님(NA) 근데 너 잘 달렸어!
민경(NA) 네? 잘 달렸다고요?
선생님(NA) 넘어지고 다시 일어났잖아
민경(NA) 그게 왜요?
선생님(NA) 빠른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다시 일어났으면 된거야
민경(NA) 그리고 완주했잖아

민경은 아이들을 따라잡는다.

선생님(NA) 민경아

화면이 BLACK 된다.

민경(NA) 잘했어!